"절임배추, 소금 원산지 궁금한데…" 표기 왜 안하나

주부들 김장철 구매량 증가 속

국내산 천일염인지 알 수 없어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한 김치공장에서 직원들이 김장용 배추를 절이고 있다.

"절임 배추를 살 때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했다고 말은 하는데 원산지 표기도 없고 과연 믿을 수가 있나요?"

김장철인 요즈음 절임 배추 구입이 늘면서 절임배추에 쓰인 소금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국내산이면 천일염일까 정제염일까. 주부들은 배추를 절이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중에서 절임배추를 구입하지만 소금의 원산지를 '정확히' 알 길은 없다. 절임 배추를 판매하는 상인의 말을 믿어야 할 뿐이다. 절임 배추에 들어가는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부 박경미(44·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18일 "절임 배추를 사서 김치를 담가 먹는데 배추는 원산지 표기가 돼 있지만 소금은 원산지 표기가 되지 않아 늘 찝찝하다"며 "절임 배추를 파는 가게 아줌마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부 김영선(41·광주시 서구 쌍촌동)씨는 "절임배추에 국산 천일염을 썼다고 하는데 김치가 쓴 맛이 나서 혹시 소금을 국내산 정제염 또는 수입산 천일염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며 "소금 원산지가 표기돼 있다면 절임 배추를 믿고 구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지에 관한법에 따르면 절임 배추 경우 배추가 전체 재료의 98% 이상을 차지하면 배추만 원산지를 표기하고, 배추가 전체 재료의 98% 미만이면 배추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재료 한가지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배추만 거의 원산지 표기를 하는 실정이고 절임 배추 속에 쓰이는 무 또는 고춧가루 원산지를 간혹 표기한다.

박경미씨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좋은 소금을 먹고 싶어한다"며 "절임 배추 재료 양에 관계없이 소금의 원산지와 천일염인지 정제염인지 등 소금의 종류 표기를 의무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소금의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면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겠지만, 현행 법에 따라 배추와 무, 고춧가루 정도만 원산지 표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젓갈류 등 수산물에 사용하는 소금의 원산지 표기는 의무화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연합뉴스

수입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86곳 적발

수입산 배추김치를 차안에서 포장갈이하거나 국산과 수입산 마늘을 섞어 김치를 만든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3일부터 12일까지 특별사법경찰 등 4000여 명을 투입, 김치 수입업체 등 1907개소를 대상으로 양념류와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둔갑행위를 집중 단속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6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2개소를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4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면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으로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파 인기상품 핫팩 자칫하다 화상 위험 병원치료 85건 달해

매서운 한파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핫팩을 잘못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핫팩 위해사례 107건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가거나(5건),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2건)가 있었다.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40℃~70℃ 이하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다.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때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특히 증상을 자각하지 못해 화상 정도가 심각해진 사례가 빈번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화상 피해 100건 중 병원 치료까지 받은 사례가 8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69.4%)이나 3도 화상(20%)이 대부분이었다. 화상 부위는 다리·엉덩이(33.6%), 상반신(27.3%), 팔·어깨(18.2%), 발·발목(13.6%) 순으로 많았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핫팩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파는 분말형 핫팩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이 이 같은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중국산 4개 제품은 아예 한글 표시사항이 없었다.

/연합뉴스

은행 신고 서류에 '모든'·'어떠한' 등 과도한 표현 삭제

금융당국이 은행의 각종 신고서류에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듯한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통장 분실신고나 비밀번호 변경 등 각종 신청·변경 서식 중 고객 책임과 관련된 문구에 '모든'이나 '어떠한', '일체의' 등 과도한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에서 소비자에게 거부감이 없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가 변액보험 기본보험료를 증액할 때 계약변경 신청서에 사업비 공제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는 기본보험료 증액분에도 사업비가 부과된다는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에 따른 조치다.

/연합뉴스

"연말행사 캐릭터 가면 조심하세요"…일부 제품서 유해물질

위로부터 새로핸즈 처키가면, 핼러윈 귀신가면, 핼러윈 호박가면.

얼굴 화상·눈에 상처 위험도 연령 표시 등 안전 관리 절실

연말 행사와 파티 등에서 많이 쓰는 캐릭터 가면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파는 캐릭터 가면 21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새로핸즈 처키가면, 할로윈 귀신가면, 할로윈 호박가면에서 35.1~45.5% 수준의 프탈레이트계가 검출됐는데, 이는 완구 허용 기준(0.1%)의 351~455배에 해당한다. 가연성 시험에서는 2개 제품에 쉽게 불이 붙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핸즈 처키가면과 할로윈 귀신가면은 작은 불꽃에 의해 각각 21초, 18초간 화염이 지속했다.

캐릭터 가면은 얼굴에 착용하거나 머리에 뒤집어쓰는 제품으로, 불이 붙으면 치명적인 얼굴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2개 제품(파티앤벌룬코리아 슈렉가면, 타임머신 스파이더맨 가면)은 얼굴 등에 염료가 묻어날 우려가 있었고, 1개 제품(할로윈 귀신가면)은 젖은 면포로 문지르면 도료가 쉽게 벗겨졌다.

특히 새로핸즈 처키가면은 눈 모형을 고정한 부위가 안쪽으로 돌출돼 착용 시 눈을 찌르거나 상처를 낼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중금속, 발암성·알러지성 염료 등 기타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조사 대상 제품 중 사용 연령을 표기한 제품은 7개에 그쳤다. 연령 표시가 없는 제품은 청소년과 어린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사용연령 표시 의무화, 안전성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리콜을 요청하고, 관련 제품에 대한 지도·단속과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크리스마스 잎새주 출시 보해양조, 한정판 200만병

보해양조(대표이사 유철근)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잎새주 크리스마스 한정판'을 출시했다.

'잎새주 크리스마스 한정판'은 소주병의 잎새주 글자에 크리스마스의 상징 중 하나인 루돌프의 빨간 코와 뿔을 그려 넣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위트있게 디자인했다.

총 200만 병만 생산되는 잎새주 크리스마스 한정판은 지난 11일부터 음식점 등에 공급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